

광주국제영화제 해체 수준의 새판짜기 나서라

2016 광주국제영화제가 당초 일정 대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영화제 전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이 풀음대로 풀음 영화제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 차체에 영화제 조직위원회 해체를 비롯한 강도 높은 새판 짜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01년 시작된 광주국제영화제는 지금까지 시비와 국비 등 1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조직 갈등을 이유로 예산이 끊겨 민간 차원에서 꾸려왔다. 최근 5년 동안엔 모두 9억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당초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열기로 한 올해 영화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국을 잠정폐쇄했다. 이사회측은 광주시 예산 지원이 불투명하고 올해 영화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한 3억원 예산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영화제 개최를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사를 준비해왔던 일부 스텝들이 "이사회와 이사장이 영화제 사무국을 위장 폐쇄하고 무책임하게 영화제 개최를 연기했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사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잠복돼 있던 영화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지난해 A상임이사의 전횡 논란에서 불거졌다. 이사장과 A상임이사측이 당시 고소 사태까지 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조직위측은 A이사를 해임하고 새판을 조직위를 구성했다.

전횡 내분 사분오열...市 예산 중단

올 영화제 무기한 연기·사무국 폐쇄

이사진 총사퇴 등 인적 쇄신 급선무

하지만 올해 2억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광주시가 "현 조직위측이 제출한 정관엔 하자가 있고, 조직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데다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고 양측 합의가 우선이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A상임 이사가 지난해 행사 결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예산 집행이 중지된 상태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영화제 사무국은 지난 1월 환골탈태를 선언하며 6월30일 영화제 개최를 선언하고 행사를 준비해왔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제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화제를 둘러싼 관계자들은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에는 영화제 초창기부터 행사를 꾸려온 A상임 이사가 전횡을 휘둘렀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사회, 일부 사무국 측과 A이사 간의 갈등이었던 이번 영화

제 연기를 둘러싸고 사무국 스텝들이 이사장과 이사들의 무책임함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스텝 A씨는 "이사장과 이사회를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화제를 준비해왔는데 이제 와서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시에 대해 영화제 15년간의 특별 감사와 시민공청회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상 감사는 영화제 조직위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지난 3월 만들어진 영화제개혁위원회와 일부 이사회를 중심으로 영화제 정상화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화제의 새판을 짜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영화제의 미래는 없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영화제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문화계 인사 A씨는 "서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화제 조직에 그대로 있어서는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며 "기득권 세력들의 사퇴 등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 시민사회가 새로운 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재영 작 'Save the World'



이기원 작 '세상을 바라보다'

최재영·이기원 합동전시 6월 1일까지 무등갤러리

어린이를 작품 소재로 삼아온 최재영·이기원 작가가 무등갤러리에서 6월1일까지 '동심(Childlike)'전을 주제로 합동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무등갤러리가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작가지원 프로젝트다.

최 작가와 이 작가는 각각 회화, 조각을 통해 동심을 이야기한다. 최 작가 작품에서는 슈퍼맨, 배트맨 복장을 한 아이들이 도심 속에 등장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이 파괴되는 상황을 넌지시 꼬집는다. 슈퍼맨이 지닌 초능력을 자연보호에 활용하자는 생각과 악을 물리치고 싶은 욕망을 천진난만하게 풀어냈다.

이씨 작품에서는 검은 사각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어린이들이 등장한다. 뒷집을 지고 가고 친구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기도 한다. 사각틀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표현했다. 순수한 아이들이 서툰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통해 인간 존귀함을 형상화했다.

최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영국 워털루 아트칼리지를 졸업하고 영국, 미국 등에서 개인전 22회, 다수 단체전을 열었다. 이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16회, 단체전 200여회에 참여했으며 한국미협 이사, 광주미협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

'스쿨피아 싱어즈' 32회 정기연주회

29일 빛고를 시민문화관...김성국 교수 고별 지휘

초등학교 여교사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스쿨피아 싱어즈'가 창단된 건 지난 2000년이었다. 비발디의 '글로리아'를 첫 무대에 올린 스쿨피아 싱어즈는 해마다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구노의 '잠엄미사',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등 대작과 가곡, 동요, 민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공연했다. '스쿨피아 싱어즈'를 탄생시킨 데 큰 역할을 한 이는 광주교육대 김성국 교수로 17년간 합창단을 지휘를 맡아왔다.

오는 29일(오후 7시30분)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32회 정기연주회 '내 마음의 노래'는 8월 정년을 앞둔 김교수가 마지막 무대로 지휘를 맡는 공연이다.

이별과 추억을 주제로 레퍼토리를 짰 이번 공연에서는 '도라지꽃' '목련꽃', '꽃잎이' 등을 들려준다. 또 바리톤 박인승, 피아니스트 서운진씨가 특별 출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이 거리의 만물상사'와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를 들려주며 울

려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이호준(광주교대 부설초 1년) 군과 김지아(송원초 6년)양이 '꽃밭에서'와 '하얀 달무리'를 부른다. 피아노 반주는 정혜진, 이은주씨다.

"당시 한창 함창 붐이 일어났고, 우리 지역에도 전문합창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김교수는 "단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힘들게 연습하며 항상 무대를 준비해왔던 터라 제가 떠나고도 단체가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스쿨피아 싱어즈의 역사가 계속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퇴임 후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에서 어머니 합창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62-520-4174. /김미은기자 mekim@

내일 문화전당 하늘마당 등서 오월길 페스티벌 라라라

'2016 오월길 페스티벌 라라라'(이하 오페라)가 28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18분까지 5시간 18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하늘마당 뒤편과 카페 OMA(문화전당점)에서 개최된다.



북콘서트 '오마주'는 '오월의 길 위에서 마주하다'를 주제로 '자유를 위한 변명' 저자 홍신자(사진)와 함께 음악과 이야기를 나눈다. 선작순 30명 사진 접수 받으며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카페 OMA에서 진행된다. '오월자판기'는 참가자에게 캘리그라피와 캐리커처가 작업된 노트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 버스킹 공연을 통해 음악도 선사한다.

그밖에 '별밤'은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고 '오월의 발자취'는 신발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시민들이 5·18기념장소 5곳(녹두서점, YWCA, 메이홀, 상무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인증샷을 찍어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오월의 기억'이벤트도 진행된다. 문의 070-4239-50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가 선보이고 있는 '범고창신' 공연.

(루트머지 제공)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이달말까지 '공감' 콘서트

내일 풍암호수공원, 30일 발산마을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가 광주 발산마을, 풍암호수공원, 충북 충주 탄약지원사령부 7탄약창 등 3곳에서 이달 말까지 '공감'콘서트를 연다.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고 '루트머지'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공감·소통·어울림' 3가지 소주제로 친숙하고 재미있는 음악과 함께 댄스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장미꽃이 만개한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28일 오후 7시 첫 무대를 연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K팝, 트로트, 전통민요 공연이 펼쳐진다.

30일에는 양동 발산마을이 흥겨움에 젖는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발산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국악보컬 박혜선, 재즈보컬 최강씨가 첫 주자로 나서 '위아래'(걸그룹 EXID), '그때 그 사람'(심수봉)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노래를 들려준다. 31일 오후 3시에는 육군군수 사령부 예하 탄약지원사령부 7탄약창을 방문해 K팝 공연을 비롯해 민요, 탕고 음악을 선보이며 장병들을 위문한다.

7탄약창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신나는 예술여행'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기획재정부 북권위원회가 후원했다. 참조 www.rootmerge.co.kr 문의 062-444-0767. /김용희기자 kimy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6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7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 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화요청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